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 미 증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엔비디아 호실적 등을 반영하며 상승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1일(목)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의 주가는 하락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경기와 고금리 여건을 반영하며 가치주, 중소형주,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3대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1.06%, S&P500 +0.53%, 나스닥 +0.03%).

전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3만 건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22.0만 건)을 하회,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반면,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8만 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는 보잉 파업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견조한 고용시장과 경기에 초점을 맞추며 달러화는 107선을 상회하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한 4.4%대에 안착.

한편, 이 날 엔비디아 호실적을 반영하며 미 증시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AI 테마 주가는 상승세 시현(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61% 상승). 높았던 기대치로 인해 엔비디아의 4분기 가이드언스가 일부 실망 매출 출회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금번 호실적을 통해 여전히 AI 성장세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또한, 클라우드 업체인 세일즈포스(+3.1%),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32.71%) 등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AI 산업의 확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 가능.

전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증시 영향력은 미미했던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였던 방산, 조선주에서의 차익실현 매출 출회에도 삼성전자 등이 하방을 지지하며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바이오 종목의 주가 변동성 확대되며 코스피 대비 약세 마감 (코스피 -0.07%, 코스닥 -0.33%)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을 반영하며 AI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재차 상회함에 따라 외국인 수급 여건은 증시의 상승 탄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지난주 급락세를 거친 이후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 유입,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등의 수급적 여건이 마련되며 이번주 들어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코스피의 PBR(12개월 후행 기준)은 0.87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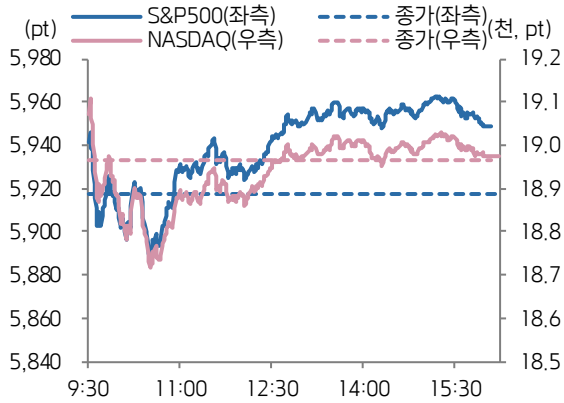
다만, 근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의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시의 탄력적인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 실제로, IMF 한국미션단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대외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한 바 있음. 여기에, 국내 상장사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증시에 대한 언더웨이 의견도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증시의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이끌 뚜렷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국내증시는 종목, 테마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순환매 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말 수급 패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표적인 국내 증시에서의 연말 수급 패턴은 금융투자의 배당향 수급 유입과 대주주 양도세 회피 수급 출회. 최근 배당주 강세 현상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상대 약세는 상기 언급한 연말 수급 영향도 일부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

특히, 배당주 및 주주환원 관련주는 연말 우호적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밸류업 모멘텀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 먼저, 거래스 등은 2천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투자를 개시한 이후 연내 3천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내달 20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이 예정됨에 따라 추가 지수 편입 기대감은 현재 미편입+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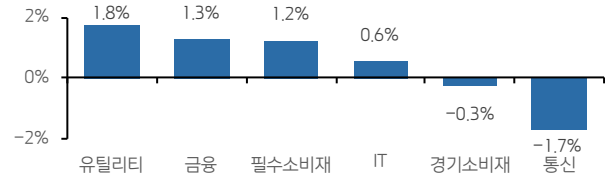
여기에 금투세 카드를 포기한 민주당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안을 발의. 물론, 재계 반발로 인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상법 개정안이 일부 합의안 형태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밸류업 테마의 2차 밸리를 이끌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이벤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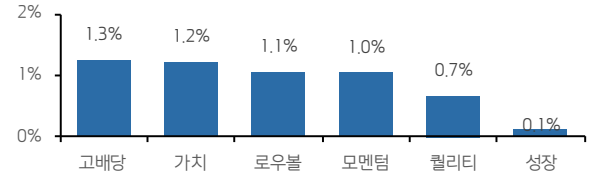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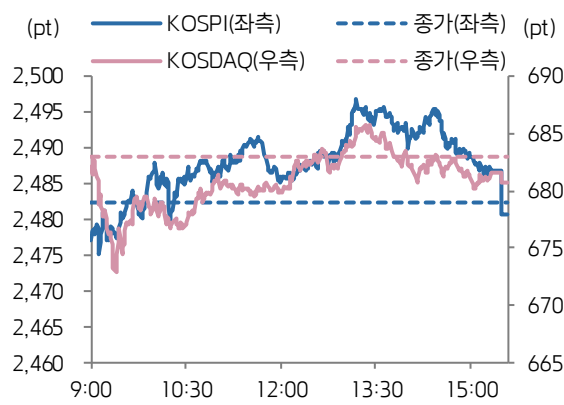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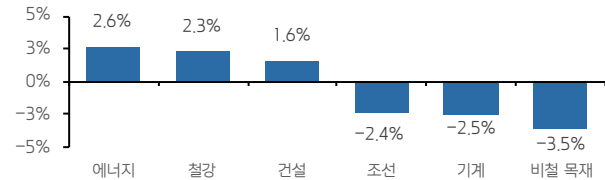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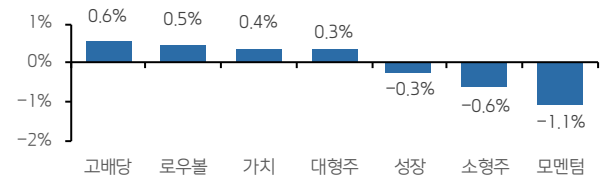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8.52	-0.21%	+19.27%	GM	55.68	+1.48%	+56.27%
마이크로소프트	412.87	-0.43%	+10.62%	일라이릴리	749.92	-0.46%	+29.49%
알파벳	167.63	-4.74%	+20.3%	월마트	88.39	+1.39%	+69.84%
메타	563.09	-0.43%	+59.56%	JP모건	244.76	+1.65%	+47.33%
아마존	198.38	-2.22%	+30.56%	엑손모빌	121.93	+1.34%	+26.11%
테슬라	339.64	-0.7%	+36.69%	세브론	161.63	+0.19%	+13.03%
엔비디아	146.67	+0.53%	+196.23%	제너럴일렉트릭	88.39	+1.4%	+69.8%
브로드컴	163.94	+0.42%	+48.45%	캐터필러	389.59	+2.12%	+33.88%
AMD	137.49	-0.08%	-6.73%	보잉	143.41	-1.83%	-44.98%
마이크론	102.76	+4.46%	+20.77%	넥스트에라	77.36	+0.6%	+3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480.63	-0.07%	-6.58%	USD/KRW	1,402.00	+0.08%	+8.85%	
코스피200	329.49	+0.14%	-7.96%	달러 지수	107.07	+0.37%	+5.66%	
코스닥	680.67	-0.33%	-21.45%	EUR/USD	1.05	-0.66%	-5.12%	
코스닥150	1,166.42	+0.2%	-16.29%	USD/CNH	7.26	+0.06%	+1.81%	
S&P500	5,948.71	+0.53%	+24.72%	USD/JPY	154.55	-0.57%	+9.58%	
NASDAQ	18,972.42	+0.03%	+26.3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3,870.35	+1.06%	+16.4%	국고채 3년	2.830	-4.5bp	-31.5bp	
VIX	16.87	-1.69%	+35.5%	국고채 10년	2.980	-3.3bp	-19.5bp	
러셀2000	2,364.02	+1.65%	+16.62%	미국 국채 2년	4.349	+3.4bp	+9.9bp	
필라. 반도체	4,963.05	+1.61%	+18.86%	미국 국채 10년	4.422	+1.2bp	+54.3bp	
다우 운송	17,172.01	+1%	+8.01%	미국 국채 30년	4.603	+0.6bp	+57.5bp	
상해종합	3,370.40	+0.07%	+13.29%	독일 국채 10년	2.318	-3.3bp	+29.4bp	
항셱 H	7,034.89	-0.79%	+21.9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155.79	-0.54%	+6.8%	WTI	70.10	+1.96%	+0.2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4.23	+1.95%	-3.65%
Eurostoxx50		4,755.83	+0.55%	+5.18%	금	2,699.30	+0.89%	+24.09%
MSCI 전세계 지수		847.84	-0.16%	+16.62%	은	30.94	-0.2%	+28.47%
MSCI DM 지수		3,732.77	-0.17%	+17.78%	구리	412.50	-0.73%	+6.03%
MSCI EM 지수		1,093.85	-0.1%	+6.85%	BDI	1,616.00	-0.68%	-22.83%
MSCI 한국 ETF		58.01	+1.08%	-11.48%	옥수수	436.50	-0.8%	-15.1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68.50	-0.66%	-16.3%
비트코인		98,094.82	+3.84%	+130.77%	대두	980.75	-0.98%	-21.71%
이더리움		3,346.27	+8.64%	+46.62%	커피	295.70	+1.09%	+55.6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